

■ 금주의 프로야구

호랑이 “곰 재우고 가을축제 가겠다”

KIA, 안방서 두산과 마지막 2연전 4연승 여세 몰아 3위 탈환까지 노려

“올해는 일찍 동면(冬眠) 하게 나” KIA가 ‘라이벌 두산’과의 시즌 막판 안방 2연전(21~22일·광주)에 사활을 건다.

4위 KIA는 18일 현재 지난 주말 두산 3연전을 싹쓸이하며 5위 두산과의 간격을 2.5게임차로 밀어냈다. 3위 한화와는 1.5게임차로 잘만 하면 3위도 넘볼 태세다.

최근 4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탄 KIA는 내친김에 이번 주 두산 2연전도 모두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서정환 KIA 감독도 18일 “이번 주 두산과의 2연전에 1, 2선발인 김진우와 그레이싱어를 선발 투입하겠다”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승부를 내는 게 양팀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의 속내는 막판까지 대접전이 펼쳐진다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심해 최고 목표인 ‘V10’ 달성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4강행 진출에 우위를 점한 서 감독 으로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가정한 향후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결국 서 감독은 투수들이 힘들어하는 시즌 막판임에도 김진우와 그레이싱어를 나홀로 선발 투수로 한 뒤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

여기에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중인 중간계투 한기주와 마무리 윤석민의 ‘환상 계투조’ 까지 힘을 보태 두산 타선을 철저히 봉쇄할 계획이다.

시즌 막판 짬짬이 나와 선발들의 힘을 덜어주고 있는 정 인, 신운 등 막강한 계투 멤버들도 구원병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탄 타선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우선 ‘호랑이의 상징’인 이종범의 부활이 반갑다.

KIA 타선은 주말 더블헤더 1, 2차전에서 8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의 불꽃 활약을 펼친 ‘만행’ 이종범의 상승세로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지난 주 타율 0.381의 불꽃타를 뽐낸 장성호와 최근 5경기서 타율 0.313(16타수 5안타)과 4개의 도루를 훔친 ‘호타 존족’의 이용규가 힘을 가세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궁서설묘(窮鼠齧貓·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란 말처럼 절박한 처지에 몰린 두산의 총공세 작전도 만만치 않다.

두산은 ‘원투펀치’ 맷 랜들(13승)-다니엘 리오스(12승)와 김명제 중 두 명을 선발로 기용해 KIA를 상대로 설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A는 주중에 현대(19일·수원)와 1게임, LG(20일·잠실)와 1게임, 주말엔 (23~24일·광주) 올 시즌 맞대결서 4승11

◇프로야구 중간순위 (18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65	45	3	0.591	-	1패
2	현대	65	50	1	0.565	2.5	1패
3	한화	58	52	2	0.527	7.0	3패
4	KIA	57	54	3	0.514	8.5	4승
5	두산	54	56	2	0.491	11.0	3패
6	S K	55	61	1	0.474	13.0	1패
7	롯데	45	61	2	0.425	18.0	1승
8	L G	47	67	4	0.412	20.0	4승

패로 유난히 약했던 2위 현대와 다시 만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유망주 6명 美 교육리그 파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유망주 6명을 미국 교육리그에 파견했다.

KIA는 “19일부터 37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리는 교육리그인 ‘2006 플로리다 인스트럭셔널리그’에 김태원 투수코치와 김희걸 이훈학, 김성계, 이범석, 진민호(이상 투수), 박경진(포수) 등 신인 및 유망주 6명을 참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우호협정을 맺은 미네소타와 한 팀을 이뤄 합동 훈련 및 18차례의 실전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플로리다 교육리그에는 미네소타를 비롯, 볼티모어, 신시내티, 보스턴 등 총 4개 팀이 참가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과학대·강진군

KIA 홈경기서 시구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열리는 광주 홈경기에서 전남과학대와 강진군의 ‘사랑의 시구’ 행사를 실시한다.

전남과학대의 조성수 학장은 21일 두산전에서 앞서 시구를 하고, 학생·교직원 200명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할 예정이다.

또 강진군은 23일 현대전에 앞서 강진군의회 김태정 의장의 시구를 하고, 김응자 부군수가 시타를 하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KIA는 이날 강진군으로부터 기증받는 고려청자 4점을 팬들을 위한 경품으로 내놓고, 사랑의 시구를 통해 모든 성금은 연말 불우 이웃돕기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정일 금강장사

금산인삼장사씨름

장정일(현대삼호중공업)이 민속씨름 금강장사에서 2년4개월 만에 꽃가마를 다시 탔다. 장정일은 18일 오후 충남 금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이틀째 금강장사 결정전(3판 다승제)에서 김보경(서울동작구청)을 2-0으로 누르고 이 체급 최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3월 안동대회에서 1품에 머물렀던 장정일은 2004년 5월 고흥장사대회에서 1위에 오른 이후 2년4개월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키 175cm로 금강급에서 비교적 단신인 장정일은 2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명의 씨름 선수가 출전한 대회 예선부터 하관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랐다.

특히 16강부터 들배지기과 안다리걸기, 배지기, 끌어잡채기 등 다양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며 결승에 오른 장정일은 제천대회 금강 5품인 김보경에게 잡채기로 두 판을 내리 때내며 황소 트로피를 차지했다.

2-3품 전에서는 윤원철(구미시청)이 이용호(수원시청)를, 4-5품 전에서는 오명훈(증평군청)이 지난달 제천대회 금강장사였던 이성원(구미시체육회)을 각각 제압했다.



이승엽 40호 썼다

카프전 4회 투런포 한·일 통산 408호

일본프로야구 홈런 1위를 질주 중인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1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망의 40호 홈런 고지를 정복했다.

이승엽은 18일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방문경기에서 0-4로 뒤진 4회 무사 2루서 두 번째 타석에 나와 볼카운트 0-3에서 143km짜리 바깥쪽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올 시즌 130경기 출장 만에 40호 홈런을 돌파한 이승엽은 지난 2003년 한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 신기록(56개)을 세운 뒤 3년 만에 다시 40호 홈런 고지를 밟았다.

지난 7일 고시엔구장서 벌어진 한신타이거스전에서 좌완 이가와 게이로부터 38~39호 홈런을 때린 이후 11일 동안의 침묵을 깨는 소중한 홈런. 주니치 타이론 우즈(35홈런)와의 홈런 격차도 다시 5개로 벌어졌다. 또 이날 한·일통산 408호 홈런을 쏘아올린 이승엽은 마쓰이 히데키(32·뉴욕 양키스)의 미·일 통산 407호 홈런 기록도 넘어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잉글랜드 케이지 우승

EPGA HSBC월드매치 최종

‘빨간 티셔츠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을 주는 골프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18일(한국시간) 외신이 전한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HSBC월드매치플레이오프 결승전 소식은 마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승전보와 흡사했지만 주인공은 잉글랜드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 폴 케이지(사진)였다.

케이지는 지난 6일 웨트위스골프장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결승에서 손 미 킬(미국)을 상대로 무려 10홀 차 대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 188만 달러를 켄 케이지는 43년 대회 사상 결승에서 최다홀차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커티스 14언더 우승

PGA 84번버클래식 최종

2003년 브리티시오픈 우승자인 벤 커티스(미국·사진)가 만삭의 아내에게 우승컵을 선물했다.

커티스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의 네머롤린 우들랜드골프장(파72·7천51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4번버클래식 마지막날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할스 하일 3세(미국·276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최결주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27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